

인천백운초등학교



진태하 교장

지난해 3월에 부임한 인천백운초등학교 진태하 교장(61)은 초등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 안정화라고 생각한다.

일기쓰기 독려, 독서생활습관 들이기 등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처음 부임했을 때는 어린이들의 일기쓰는 습관이나 독서량 자체가 부족해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들었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했고, 이에 대한 결과물이 바로 '백운생활일기'.

이 책 속에는 학생들이 하루 중 있었던 일들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목록별로 요약해 적을 수 있도록 했다.

진태하 교장의 이러한 노력은 학생들의 독서습관 향상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습관을 유도했다.

또한,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점심시간에는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화를 구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매주 아침조회 시간에는 다독한 학생들을 20~30명씩 초청해 미술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들에게 독서 동기부여를 위해 실시한 방법을 쓴 결과, 진태하 교장이 부임하기 전과 현재의 학생들의 독서량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진 교장은 수업과 학생지도 등에 있어 교사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한다.

자나친 간섭이나 상의하달만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군림하는 교사 보다는 봉사하는 입장으로 생각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믿음으로 교사들을 대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한다.

한편, 진 교장은 학생들이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역적 특성상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곳이지만 되도록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인천 백운초등학교 전경.

스스로 하는 어린이...그들이 꿈을 펴는 곳

21세기 인재양성은 자기주도 학습법으로 진행

2003년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 OECD 가입국 학생들의 학업수준을 평가하는 평가법)에서 2위를 차지한 한국 학생들의 실력은 과거에 비해 일취월장했다.

하지만 학생들 대부분이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며, 공부를 잘 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반면에 1위를 차지한 핀란드의 경우는 학생들 스스로 공부를 위해서 얻은 당당한 결과임을 밝히 극히 대조적이다 할 수 있다. 1,2 위인 양국 간의 성적은 최상위권으로 그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행복지수의 차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드러냈는데,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학습동기에서 그 답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근원한 진태하 교장은 '자기주도학습법'으로 학생들이 학습동기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를 진행했다.

즉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육활동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며, 공부와 행복지수를 일치시키고자 한 것이다.

더욱이 올해 7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받은 이 학교는 학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에서 다양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활동을 마련하였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에게도 기회를 주었다.

*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는 의무교육을 마친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생활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읽기, 수학, 과학 분야별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학업성취도 국제화력평가이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는 OECD 교육분과가 29개 회원국과 3개 비회원국의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교육이 인적자본 축적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Super Kid Project'...학생이 참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특화



◆ 점심시간을 이용해 책을 읽어주려는 학부모들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Super Kid Project)이란 학생 스스로 학습목표를 정하고 계획하며 공부에 필요한 적절한 전략과 방법을 터득하고 실행한 후, 스스로 결과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학습방식이다.

주 1회 90분씩 총 10회 차로 운영한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공부 동기를 찾을 수 있는 자기 성찰과 성장 과정이다.

첫 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5,6학년 학생들은 밝은 표정으로 다음 수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한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는 한 학생은 다닌 학원을 끊고 자기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점검하면서 공부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Mom Coaching'...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스터디 코칭법

교사는 학생과, 부모는 자녀와 어떻게 대화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인식하고 대화의 기술을 학습하는 것을 스터디 코칭법(Mom Coaching)이라 한다.

사고력과 창의성 향상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는 영재교육, 기초부진과 교과부진 학생들

1대1 학습교육을

과거의 수직관계로서의 부모 - 자녀, 교사 - 학생의 관계가 아닌, 함께 학습 동기를 찾도록 도와주는 코디 역할의 코칭법으로 주 1회 90분씩 총 8회 차로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학생과 함께 참여했던 한 학부모는 "간강사정상 학원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던 차에 자기 주도 학습프로그램이 있다 해서 아이를 실험하여 무조건 듣게 했습니다."라며 "10주 과정으로 3개월 진행하였는데요, 수업 때마다 만족해 하며 즐거워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본인이 자기 주도 학습을 시작하더니, 시기지도 않았는데 다음 학기 문제집을 빠짐없이 다 풀어보는 등 긍정적 효과가

많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교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뇌활성 프로그램'에 3-6학년 학생들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했다.

'뇌활성 프로그램'은 집중력 기르기, 워킹 메모리 수업, 마인드 컨트롤로 진행되었다. 학생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불안을 스스로 조절하고, 현재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이 되어 슬럼프에 빠질 경우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주었으며, 뇌 활성화를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학생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와 동시에 '웃음과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이에 참여했던 3-6학년 학생들은 레크레이션 활동과 유머를 통해 긴장감을 해소하고 집중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백운영재학급...수학·과학분야 영재 양성

백운초등학교는 인적관역시 교육청 영재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백운초등학교 소속 초등학교의 학생들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인천백운영재학급'은 과학·수학 분야의 잠재적 재능이 뛰어난 4,5학년학생들을 위해서 미래의 과학자 및 수학자를 육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수학, 과학, 인성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영재성 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받아 방과 후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전학년 대상의 '힌트를 돌보교실'에서는 인턴교사 5인이 학년별로 학생들을 담당 지도하고 있다.

중위권 학생들에게는 심화학습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초부진과 교과부진 학생들은 1대1 눈높이 학습을 진행하였다.

중위권 학생들은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 스스로 대견해하고 기뻐했으며, 1대1 학습을 한 학생들은 탄탄하게 기초를 다지는 성과를 보였다.

돌보교실에서는 숙제지도, 보드게임, 독서·논술, 종이접기, NIE, 풍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수업은 '암바표 영어'로 진행한다.

'무조건 암기하고 스토리스를 통한'하는 영어 학습법은 이전 '인해요!'라는 주제를 걸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흥미와 정서에 맞춰 영상 매체를 활용하는 '영어원음으로 보고, 듣는 애니메이션' 교육법이다.

학생들이 편안한 방식으로 영어를 습득하고 동기를 형성하므로 더 이상 영어에 대한 거부감 없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영화를 보고 나서 짧지만 자기도 모르게 영어로 말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자신이 본 영화와 시간을 적는 기록표도 개인별로 마련해 자기 주도적 학습과 더불어 그 진행 정도와 효과를 파악할 수도 있다. 이쯤 되면 영어교육에 큰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부모들의 근심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민 기자 hsi@eduyonhap.com

"사교육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



◆ 학교 도서실과 학급교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백운초등학교는 노력하고 있다.

인천백운초등학교는 기존에 다양하게 진행하던 방과후 프로그램을 사교육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해 확대 강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폭을 늘렸다.

그동안 학생들에게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가져왔던 예체능 관련 부서는 스포츠탈스, 피아노, 칼라클레이, 바이올린, 구슬공예, 바둑, 미술부, 풍물·난타 등으로 특화하였고, 창의성 관련 로봇제작부를 운영하였다.

또한 학업 신장을 위해 중국어, 한자, 컴퓨터, 수학, 원어민 영어교실, 국어·논술부를 통해 백운초등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사교육의 혜택을 학교에서 누릴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영어는 총 3개 부서로 원어민이 진행하는 '오키토키 원어민 영어교실', 영어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영어야 놀자', 돌보교실의 '원어로 보고 듣는 영어 애니메이션'을 운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본교 교사와 함께하는 '수학다지기'는 무학년 개념으로 기본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총 6개반 주 4회로 진행하여 그야말로 내실 있는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교실 수업 뿐 아니라 교실 외 문화체험으로 전 학년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였다. 1-3학년은 뮤지컬 '별거뻐서 임금님' 공연을, 4-6학년은 한국 무용으로 재창작한 '호두까기 인형'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전액 지원하여 학생들의 즐거운 공연 관람의 장을 마련해 준 것이다.

백운일기를 통한 스스로 독서활동이 독서특성에 차곡차곡

학교 3층에 위치한 '스타나눔센터 도서관'에서는 어머니들이 자원봉사

를 지원하여 운영하는 곳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생각해 얼마전 새롭게 리모델링을 마쳤다.

또한 도서구입 예산을 따로 책정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가 희망하는 도서를 조사하여 구입했으며, 도우미 어머니들이 매일 동화구연을 실시하고 있어 편안한 자세로 구연동화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제작한 백운일기를 쓰면서 그날 읽은 책 제목과 지은이를 쓰고 자기가 읽은 책의 권수를 기록하고, 전 학년이 가지고 있는 독서특성고, 전 학년이 가지고 있는 독서특성은 도서관에서 마일리지 적립식으로 찍어주는 개인 자신으로 학생들이 특별히 아끼는 애장품이 되었다.

학교에서는 스스로 통장에 썬이는 '독서재신'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목표지점까지 도달한 학생들에게는 미술소를 직접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도서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학급에서는 도서 둘러읽기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 학급을 대상으로 반별 35권씩 대충하여 1달을 주기로 열반으로 둘러읽기를 하고 있어 일상적인 도서습관을 기르고 있다.

백운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동기를 찾아 공부하고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교장, 교직원, 학부모가 힘을 합쳐 다양하고 활발한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이 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어른이 학교를 방문해도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까 아닌 "효도하겠습니다"라며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다.

이는 부모님 의지대로 공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내 의지대로 공부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겠다는 의사표현인 것이다.